

**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www.tyunc.com 031\_484\_3858

# 교육연합신문

능력있고 소통되는 믿음직한 변호사

**법무법인 우신**

민사/형사/가사 무료법률상담 한정  
 사무실 : 032-861-2222  
 휴대전화 : 010-4380-5607

2017년 5월 31일(수) 제 277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 상인천여중 경로당 찾아 어르신과 시간 가져 6번

상인천여중학교 레인보우 문화체험반 학생들은 5월 24일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 극동아트당 경로당(남동구 구월로 소재)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상인천여중의 경로당 방문 행사는 핵가족 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 평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어가부 장관상 10번

평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가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평주대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전남도 담양군 청평중학교 탐방 16번

담양군 청평면은 슬로시티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청평 슬로시티는 동편의 월봉산과 남쪽의 국수봉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펼쳐 감싸 안은 형국으로 월봉천과 운암천, 유천이 마을 아래에서 모인다고 '삼지내'라고 한다. 전통가옥과 아름다운 옛 돌담장을 따라 걷다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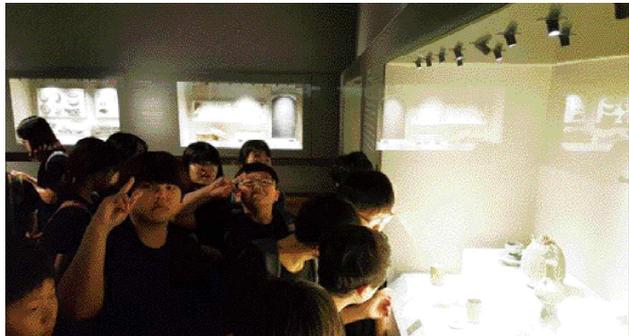
## 산업기술 R&D 통한 일자리 창출 모색

산학연 전문가간담회...새 정부 공약 등과 연계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정부가 산업기술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만기 1차관 주재로 28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우수기술연구센터 CTO협의회와 의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태 산기협 사업기획본부장은 산업 R&D 일자리 창출 촉진 정책연향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그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점검하고, 새 정부 공약사항 등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 아이디어는, 정부 출연금 2억 원당 연구인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채용조건부R&D' 추진으로 직직고용 창출하고, 새 정부의 '추가 고용지원제도'와 연계해 일자리 유지와 신규 고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과제별 및 기술개발 성공 후 남부하는 기술료를 신규 인력 채용 시 면제해 주는 '고용촉진형 기술료



인천부협동초 2017학년도 6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

인천부협동초등학교(교장 조숙자)에서는 지난 5월 18일 6학년 155명 학생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사회 시간에 배운 근세의 적화비와 개화 당시 문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역사란 우리 곁에 살아있는 생활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또한, 전쟁기념관에서는 6.25 전쟁의 참상을 확인하고 국가의 소중함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소중한 하루였다. 인영함 기자 9/26

## 지자체 공무원 30만명 돌파

21년간 2만 6000명 증가... 소방공무원 2배 늘어...증가율 경기도 44%로 가장 높아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30만 3401명으로 집계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말 27만 7387명이던 지자체 공무원은 21년간 2만 6014명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유인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 공무원이 3만 4729명에서 4만 9875명으로 43.6% 늘어났고 인천(1만 997명→1만 3721명), 대전(6330명→7322명) 등도 증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시는 5만 3956명에서 4만 9317명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경남(2만 5114명→2만 3060명), 전남(2만 1681명→2만 604명), 전북(1만 6916명→1만 6535명) 등도 공무원 수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 9875명(16.4%)으로 공무원 수가 가장 많고 서울시 4만 9317명(16.3%), 경북도 2만 5413명(8.4%) 순이었다. 21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1995년 2만 440명에서 지난해 말 4만 37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직도 같은 기간 5명에서 1만 9327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산직도 1528명에서 352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3세이며 평균 계급은 7급, 평균 근무연수는 16.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신규로 채용된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1만 6203명이던 해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5세로 1년 전의 29.2세보다 어려졌다. 합격자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69.2%로 가장 높았다. 특히 25세 이하 합격자가 2015년

3913명에서 지난해 4786명으로 늘었고 10대 합격자도 12명에서 3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어린 나이에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공채 여성 합격자 수는 2005년 여성합격자가 50%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5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행자부는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1956~1963년생)의 은퇴 급증으로 2020년까지 3만 1994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햄버거·피자에 '알레르기 유발 재료' 표시한다

30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1만 6343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가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사용할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의 적용 대상은 두레유르,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나무루,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프프제, 도미도피자 등 점포 수 100개 이상인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

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깥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팥,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들 첨가하여 최종 제품으로 SO<sub>2</sub>로 10mg/kg 이하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21 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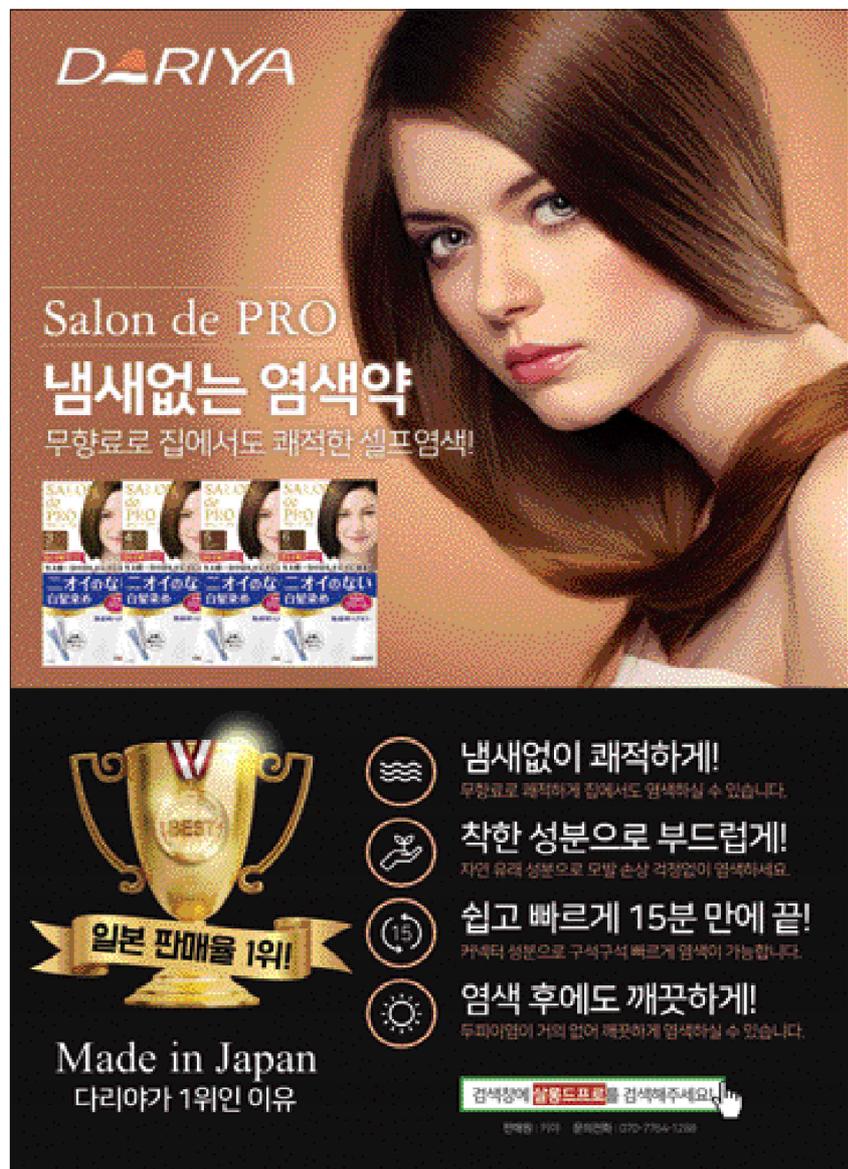
알레르기 표시는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개시판, 메뉴북, 네임카드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가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세면 재기지원 펀드, 연 5000억 규모 조성"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삼세면 재기 지원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박광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금융위 중소기업정책수원에선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3000억 원 규모의 삼세면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 및 민간자금을 통한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선정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단독재우 재기 지원 기업 등이다. 삼세면 재기 지원 펀드는 실패한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세분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도 창업기업이 조성을 위한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다. 박 대변인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중소기업청의 '삼세면 재창업 지원

펀드' 2000억원(연간 기준)을 합할 경우 삼세면 재기지원 펀드 조성 규모는 연간 5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연대보증 해지 기준을 현재는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으로만 했는데, 그걸 확대해 창업 이후 7년 된 기업까지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DARIYA**

Salond PRO

냄새없는 염색약

무향료로 집에서든 쾌적한 셀프염색!

일본 판매율 1위!

Made in Japan

다리아가 1위인 이유

- 냄새없이 쾌적하게! 무향료로 쾌적하게 집에서든 염색하실 수 있습니다.
- 착한 성분으로 부드럽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모발 손상 걱정없이 염색하세요.
- 쉽고 빠르게 15분 만에 끝! 캐주얼 성분으로 구성구석 빠르게 염색이 가능합니다.
- 염색 후에도 깨끗하게! 두피아염이 거의 없어 깨끗하게 염색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가이, 윌리엄스 (070-7764-1238)